

제주4·3 72주년 특집 (하) 책임있는 실천의지 보여야

정치권 말로만 '4·3 완전해결' 약속

행방불명 희생자 등 확인 못해 유족들 고통 이제는 공허한 수사가 아닌 진정성 보이길

4·3은 오늘로 72주년을 맞는다. 정부가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지도 17년이 흘렀다. 2018년 70주년 4·3은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에 치러져 어둠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온전한 역사로 자리매김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과정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행방불명 희생자 문제를 비롯 유해발굴과 유적지 정비 등 갈 길이 멀다.

4·3희생자의 상당수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희생된 경우다. 그 중

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희생됐는지, 시신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족들에게는 평생 한으로 남아있다.

지난 해 11월 22일까지 확정된 희생자 1만4442명 가운데 행방불명 희생자는 4225명에 이른다. 이들은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거나 바다에 수장된 채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령에 의한 예비검속 희생자 상당수도 어디에 묻혀있는지조차 유해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유해발굴을 통해 제주국 제공항에서 387구가 수습되는 등 실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행방불명 희

생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유족들이 차츰 고령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방불명 희생자 문제는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이다.

혜손·멸실태가는 4·3유적지 보존·정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4·3유적지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확보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4·3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특별법 제정의 1단계가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사과, 국가추념이라면 이제는 국가 배상과 정의 실천으로 피해회복의 2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그 핵심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행방불명인 희생자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2년 전 제주도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후로도 오랫동안 4·3은 금기시된 역사였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비극적인 참상이 빚어진 만큼 그에 대한 책임있는 실천이 절실하다. 희생된 부모형을 찾지 못하고있는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정치권은 특별법 개정 등을 약속했지만 기억없이 표류하고 있다. 72주년 4·3을 맞이한 오늘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제는 공허한 수사가 아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실천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3일 금요일 음 3월 11일 (3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10%	10%
30%	성산 10%	10%
30%	고산 10%	10%
30%	서귀포 10%	10%

주간예보

내일	맑음	9/16°C
모레	맑음	7/13°C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흐림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8~10°C, 낮 최고 기온은 15~16°C의 분포를 보이며 내일까지 평년(아침 7~9°C, 낮 14~16°C)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1.5m로 일겠다.

해돋이 06:19	달뜨기 13:21
해질미 18:56	달지기 03:00
물때	간조 00:00
	19:10
	13:54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주의	보통

감염병환자 이송전용 음압구급차 6대 확보 도, 보건소에 상시배치

제주에 1대 밖에 없는 감염병 의사환자 이송 전용 '음압구급차'가 추가로 배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도는 정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음압구급차 6대 구입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구입비 전액인 12억원을 교부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음압구급차는 병원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차량이며,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제주대학교 병원에 1대가 운영되고 있다.

추가확보되는 음압구급차는 필요 절차를 거친 뒤 한달후쯤 도내 보건소 6개소에 각각 배치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자 및 의료진 안전과 코로나19 도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압구급차 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햇차' 수확 시작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오설록 농장 서광차밭에서 주민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햇차를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도내 학원·교습소 10곳 중 9곳 '운영' 도·교육청, 코로나19 방역 여부 2차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합동 지도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24~27일 도내 전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한 데 이어 두번째다.

앞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학원과 교습소 1535곳을 방문해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역 확인, 교실 내 간격 유지 등 방역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점검에선 이같은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방지를 위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 휴원에 참여한 도내 학원은 135곳(전체의 10%)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월 10만원 농민수당' 현실화될까 제주도의회 주민청구 발의...10일까지 입법예고

도 "매년 623억 소요 부담" 제주지역에서 '월 10만원 농민수당'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효서명인 5262명으로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수(2692명)를 충족했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 농업인은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전년도 농업의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미계약으로 인해 각종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특별자치도도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매년 6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 과도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4월 산불예방 총력전

제주자치도는 4월 한달간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4월은 4·3 희생자 추념일, 청명, 한식, 국회의원 선거일 등으로 상춘객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농산폐기물 소각행위가 농촌지역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440건 중 봄철에 64%인 281건이 발생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34%, 소각객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

늘 고객의 행복한 삶과 환경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제주도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기업-
동남종합건설은 씩씩한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행복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SINCE 1989
한라일보 31주년

상가임대

제주시 청사로 75(도남동, 동남빌딩)
1층 241㎡

회사보유분 매매

서귀포시 중앙로 225(서홍동)
동남한올레아파트 84.90㎡
505호, 605호

문의 ☎ 064)753-8181